

## 실패한 가족로망스와 고아들의 공동체

— 심훈의 『직녀성(織女星)』(1934~1935)을 중심으로 —

황지영\*

<차례>

1. 가족로망스의 실패를 알리는 징후들
2. 탕진하는 아들이 불러온 아버지의 몰락
3. 은유에 갇힌 가문 속 여성들
4. 아버지 세계의 포월(抱越)과 가문 밖 딸들의 선택
5. 사회주의(자)와의 접촉과 고아들의 공동체

### <국문초록>

프로이트의 가족로망스적 관점에서 프랑스 혁명을 분석하면 '아들 세대는 아버지 세대를 부정한 후 형제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였다'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조선의 변혁은 프랑스 혁명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심훈은 『직녀성』에서 긍정성을 지닌 아버지 세대를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포월(抱越)해야 할 대상으로 그려내고, 이런 아버지가 몰락하는 이유를 얼치기 근대인인 아들의 타락 때문으로 제시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반 몰락의 길을 걷는 동안 아버지의 세계 속에서 은유화 되었던 딸들은 가문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다. 이들은 공유와 분업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아버지가 없는 고아이자 사회주의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주제어** 심훈, 직녀성, 가족로망스, 은유화, 포월(抱越), 사회주의, 공동체

\*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 1. 가족로망스의 실패를 알리는 징후들

프로이트는 ‘가족로망스’를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회화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아이에게 부모는 유일한 권위자이자 믿음의 근원이다.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처럼 되는 것을 소망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가 실제로는 비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상 속에서 이상적인 아버지를 만들어낸다.<sup>1)</sup> 또한 현실의 아버지와 이상적인 아버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백일몽’을 매개로, 고귀한 진짜 부모가 존재한다거나 형제자매가 어머니의 부정으로 태어난 서자라고 상상한다.

프로이트의 ‘가족로망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개인의 무의식적 측면뿐 아니라 가족과 국가가 호환 가능한 상징체임을 알려주고, 집단적 무의식으로 작동해 문화와 사회의 발생론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기원에 대한 사유가 담긴 「토텐과 타부」<sup>2)</sup>에서 프로이트는 ‘사회’란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에 대한 죄의식을 공유하는 아들들이 맺은 계약의 산물임을 보여주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은 국왕을 처형함으로써 “가부장적 권위로부터 벗어난 정체(政體)를 상상해 보기 위한 창조적

1) 지그문트 프로이트, 「가족 로망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역, 열린책들, 2003, 199~202쪽.

2) 지그문트 프로이트, 「토텐과 타부」, 『종교의 기원』, 이윤기 역, 열린책들, 1997, 203~432쪽.

「토텐과 타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투심이 많고 폭력적인 아버지는 모든 여자들을 독점하고 자식들을 쫓아내버린다. 그 후 쫓겨난 형제들은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죽이고, 선망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의 고기를 먹는다. 아버지의 몸을 먹는 행위를 통해 그들은 자신이 아버지와 일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의 힘 중 일부가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양가감정 때문에 죄의식에 빠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죽은 아버지를 신(토텐)으로 만들고, 아버지의 살해를 의례적으로 반복한다. 결국 토텐 향연이란 부친 살해라는 범죄 행위의 반복이자 기념축제이다.

노력<sup>3)</sup>이며, ‘아버지’ 국왕을 살해한 ‘형제’ 시민들이 ‘형제애(fraternité)’를 중심으로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는 가족로망스이다. 그러므로 프랑스 혁명을 통해 등장한 서구적 근대의 주체는 아버지를 살해한 ‘자발적 고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하지만 개화기를 거쳐서 식민지기에 접어든 조선에서 프로이트적 가족로망스는 그 원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비틀린 형상으로 등장한다. 이 시기에는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공유하던 군사부(君師父), 다시 말해 국가의 수장, 학문의 전달자, 가문의 수호자는 동반 몰락의 길을 걷는다. 조선은 제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근대적 지식은 일본, 중국, 서양 등 외국을 통해서 들어오며, 가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했던 규율들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아들 세대들에게 억압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근대 초기의 지식인들은 유교로 대변되는 전통과의 단절을 통해서 새롭게 ‘근대’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것은 전통이란 이름 아래 존재하는 기존의 악습을 폐지하고 신교육과 신사상 등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이광수로 대변되는 근대 주체의 중요한 특징인 ‘정치적 고아의식’과 ‘자발적 고아 되기’의 전략<sup>5)</sup>은 전통으로서의 ‘아버지’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고아로 규정하는 근대 가족로망스의 산물이다.<sup>6)</sup> 여기까지 본다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서구의 근대 주체가 생성되는 방식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난다.

3) 린 헌트,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조한욱 역, 새물결, 2000, 11쪽.

4) 김홍중, 「13인의 아해 - 한국 모더니티의 코러스」,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343~345쪽.

5) 허병식, 「고아와 혼혈, 근대의 잔여들」, 박선주 외 편, 『고아, 족보 없는 자 : 근대, 국민국가, 개인』, 책과함께, 2014, 23~24쪽.

6)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21~25쪽.

아버지를 부정한 형제들은 연대하여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고 사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전통으로서의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에 침략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아버지가 등장한다. ‘전통=조선’의 소멸은 곧 ‘근대=일본’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었기에<sup>7)</sup>, 이 과정에서 아들들은 사라진 아버지를 부정하면서 찾으려 하고, 새로운 아버지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매혹당하는 양가감정 사이를 오간다. 그러므로 전통의 살해자이자 근대의 기획자인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의 자리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두 아버지에 대한 두 가지 양가감정 사이의 ‘어딘가’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가족로망스를 둘러싼 현상들은 국가적 상황에 대한 집단 무의식적 차원에서만 작동한 것이 아니었다. 근대화의 바람을 타고 개개의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아들들의 욕망이 발견되었다. 그 욕망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아버지와 근대적이고 반봉건적인 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방식으로 등장하기도 했고, 아들들이 새로운 세계를 찾아 아버지의 세계인 집을 나서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명문가의 자제이면서 왕족과 조혼하였고, 동시에 근대의 발 빠른 수용자였던 심훈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사이에 존재하는 균열을 예감하였다. 그래서 가문의 쇠퇴를 경험하고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후, 1930년대에 창작한 다양한 장편소설들에서 전통과 근대가 혼재되고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직립하게 그려냈다. 심훈은 『직녀성』의 ‘작가의 딸’에서 “연애, 결혼, 이혼 문제의 전반”을 통해서 “젊은 남녀들의 생활 이면을 묘사”<sup>8)</sup> 하겠다

7) 김홍중(2009), 앞의 글, 348쪽.

8) 심훈, 「작가의 딸」, 『조선중앙일보』, 1934.3.3.; 김종욱·박정희 편, 『심훈 전집4: 직녀성』

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 소설은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3월 24일부터 1935년 2월 26일까지 연재되었고<sup>9)</sup>, 심훈은 『직녀성』의 원고료를 받아 집필실인 ‘필경사(筆耕舍)’를 충남 당진에 짓기도 했다.<sup>10)</sup>

이러한 『직녀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심훈의 삶과 문학을 함께 다루면서 『직녀성』에 녹아든 심훈의 자전적 요소들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심훈의 일대기를 치밀하게 재구성하는 한편, 『직녀성』과 관련해서는 주인공인 ‘이인숙’이 심훈의 첫 번째 부인인 ‘이혜영’을 모델로 한 것임을 비롯하여, 등장인물들과 심훈 및 주변인물들의 상관성을 분석한다.<sup>11)</sup>

두 번째는 『직녀성』의 형식적 측면에 주목한 논문들이다. 권희선과 최원식은 『직녀성』을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서사 양식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살피고, 남상권은 이 소설의 가족사소설적 면모를 파헤치기 위해 족보를 비롯한 실증자료를 치밀하게 제시하였다. 문영광은 소설 속의 공간과 인물설정, 장르 전환 요소를 분석하여 『직녀성』뿐 아니라 유사한 구도를 지니는 심훈의 다른 장편소설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sup>12)</sup>

(상)』, 글누림, 2016b.

- 9) 『직녀성』은 심훈이 사망한 후 둘째 형 심명섭의 편집본이 1937년에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상하 2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그 후 나온 전집들은 한성도서주식회사본을 가지고 『직녀성』 부분을 구성하였으나, 2016년에 나온 ‘글누림’의 심훈 전집은 신문연재본을 가지고 전집을 구성하였다.
- 10) 심훈, 「필경사잡기(筆耕舍雜記)」, 『개벽』, 1935.1.; 김종욱·박정희 편, 『심훈 시가집 외』, 글누림, 2016a, 309~310쪽.
- 11) 신경림 편,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지문사, 1982.  
오현주, 「심훈의 리얼리즘 문학 연구: 〈직녀성〉과 〈상록수〉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 한국문학연구학회, 1993.  
유병석, 「심훈의 생애연구」, 『국어교육』 14, 1968, 10~25쪽.  
조선영, 「심훈의 삶과 문학 창작과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세 번째로는 『직녀성』의 내용을 분석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유병석과 조남현의 연구는 심훈 소설에 대한 연구가 『상록수』에 치우쳐 있던 시기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병석은 『불사조』와 『직녀성』이 지닌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하였고, 조남현은 이 소설의 갈등양상을 세대 간 대립과 계급갈등이 중층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박소은과 이상경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 주인공이 지닌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권철호는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심훈과 무로후세 코신[室伏高信]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직녀성』을 비롯한 심훈의 문학세계 전반을 관통할 수 있는 탁견을 제시하였다.<sup>13)</sup>

- 
- 12) 권희선, 「중세 서사체의 계승 혹은 애도 : 심훈의 『직녀성』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20, 2002, 민족문학사연구소, 178~207쪽.  
 남상권, 「『직녀성』 연구 : 『직녀성』의 가족사 소설의 성격」, 『우리말글』 39, 우리말글학회, 2007, 309~338쪽.  
 문광영, 「沈薰의 장편 『織女星』의 소설 기법」, 『교육논총』 20, 경인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 2002, 129~164쪽.  
 송지현, 「심훈 직녀성 고-그 드라마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1, 한국언어학회, 1993, 417~429쪽.  
 최원식, 「서구 근대소설 對 동아시아 서사- 심훈 『직녀성』의 계보」, 『大東文化研究』 40,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2, 137~152쪽.
- 13) 권철호, 「심훈의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사랑의 공동체" - 무로후세 코신[室伏高信]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5,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179~209쪽.  
 \_\_\_\_\_, 「심훈(沈薰)의 장편소설(長篇小說) 『직녀성(織女星)』 재고(再考)」, 『語文研究』 43, 어문연구학회, 2015, 357~385쪽.  
 박소은, 「새로운 여성상과 사랑의 이념 : 심훈의 『직녀성』」, 『한국문학연구』 2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1, 351~373쪽.  
 유병석, 「沈薰의 작품세계」, 전광용 외,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1984, 286~298쪽.  
 이상경, 「근대소설과 구여성 : 심훈의 『직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9,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174~200쪽.  
 조남현, 「沈薰의 『織女星』에 보인 갈등상」,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90, 201~219쪽.

본고에서는 양반가의 구여성이 근대적 신여성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여성수난사로 그려낸 『직녀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로망스적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아버지 세대를 부정했지만 그렇다고 아들들의 활약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족로망스를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가문-밖-딸들’과 ‘아버지-없는’ 고아들의 연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 2. 탕진하는 아들이 불러온 아버지의 몰락

전통과 근대가 교차하던 식민지 시기의 문학적 좌표 속에서 심훈의 자리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가 『직녀성』에서 아버지의 몰락을 그려내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4)</sup> 『직녀성』에는 전통적 세계관과 근대적 세계관의 충돌, 신구세대의 마찰, 계급 갈등 등이 등장하지만<sup>15)</sup>,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주인공 인숙의 아버지인 이한림은 청렴결백하고, 윤자작은 태화탕(太和湯)이라는 별명을 지닐 만큼 온순하다. 이런 아버지들이 몰락하는 이유는 얼치기 근대인인 아들들 때문이다. 아들들은 아직 얻을 것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제대로 부정하지도 못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만들지도 못한 채 가문의 몰락을 초래한다.

14) 오현주(1993), 앞의 논문, 98쪽.

심훈의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 그의 소설을 살피는 작업이 주효한 이유는 그가 현실에서 소재나 제재를 취해 대중에게 실감을 줄 만한 문학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여기면서 생생하고 실감나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15) 조남현(1990), 앞의 책, 210쪽.

이한림은 갑오년(1894) 이후 조선을 둘러싼 해외 정세가 점점 험악해져 가는 것과 매관매직(賣官賣職)으로 “위조지폐 같은 첩지”가 판을 치는 꼴을 더는 볼 수가 없어서 선영들이 계신 과천으로 낙향하였다. 본래 그는 서화, 소시와 음률, 거문고 등에 재주가 있었으나, 낙향한 후에는 오직 필묵만으로 무료한 세월을 보낸다. 이것은 진흙탕이 된 세상에서 발을 뺨으로써 지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격동의 세월에 능동적으로 맞서지 않고 은둔을 선택한 인간의 결말은 비극적이기 마련이다.

이한림은 “다 망헌 세상에 신학문이란 무엇이고 행세란 다 무엇이나”라는 생각에 아들 경직에게도 학교 공부를 시키는 대신에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읽혔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한림에게는 수세적인 태도가 삶을 보존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였겠지만, 아직 젊은 경직에게 아버지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든 것, 고루한 것, 더 나아가 피해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경직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공금 사백 원을 횡령해서 중국 상해로 도망을 간다. 아들의 가출로 한림은 속이 쓰렸지만 아들이 징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에게 “문전의 옥답 열 마지기”를 잡혀서 문제의 돈을 갚아주고는 시름시름 늘어간다.

경직이 중국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윤자작의 사촌인 윤보영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시골에서 ‘상투’를 들고 진서(眞書)를 읽던 경직은 ‘넥타이’를 맨 하이칼라 보영을 만난 후, 자격지심을 느낀다. 동경에서 법과를 나온 보영은 경직이 ‘새것’과 ‘변화’에 눈뜨게 만드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 보영이 경직에게 “케케묵은 유교사상(儒敎思想)에 젖어서 양반 노름만” 할 때가 아님을 역설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영과 경직은 영향수수관계였다.<sup>16)</sup>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은 긍정성을 산출하지 못하고, 경직은 중국에서도 제대로 된 근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초라하게 귀국한다.

16) 조남현(1990), 앞의 책, 213~214쪽.

이 년 동안 그가 중국에서 배운 것이라곤 담배와 마작과 술뿐이었다.

새로운 문명에 대한 동경과 허영심에 사로잡힌 상투쟁이 청년 경직은 서울로 돌아와 노는계집을 얻어 셋방살림을 하고, 종산을 팔아먹고, 거액의 빚을 또 진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경직의 아내마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리대금업자가 빚을 독촉하자 아들과 인연을 끊은 이한림은 ‘울화병’에 걸려서 죽고 만다. 얼치기 근대인을 아들로 둔 아버지의 말로는 아들도 잃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는 것이었다.

소설 속에서 이한림과 유사한 방식으로 몰락하는 또 다른 아버지는 이한림의 친구이자 사돈인 윤자작이다. 이한림과 윤자작은 서울 회동에서 이웃으로 살면서 함께 자랐다. 이 둘은 한림의 아버지에게 같이 글을 배우고 장가까지 같은 해에 간, 그야말로 죽마고우였다. 원래 윤자작의 집안은 청빈하여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윤자작은 암전한 문필, 준수한 외화, 신중한 대인접물, 남자의 도량 등을 갖추었기 누구나 그를 흠모하였다. 그래서 그의 소문을 들은 왕가의 근척인 ○○궁의 윤 판서가 그를 양자로 들였고, 윤 판서가 죽은 후 그가 습작(襲爵)하여 자작이 되었다.

이런 윤자작에게는 양자로 들어간 가문에 팔십이 넘는 조모가 있었는데, 조모는 아들이 죽은 후부터 계속해서 증손부를 보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래서 윤자작은 자신과 막역한 이한림을 찾아간다. 윤자작이 습작을 한 후 둘 사이는 소원해졌지만 시골에서 적극적인 생활을 하던 이한림은 어릴 적 동무인 윤자작을 반기고, 결국 자신의 딸인 인숙을 윤자작네로 시집을 보낸다.

- (1) (용환은) 어느 신문사에 관계를 해서 행세를 하고 싶는데 그 신문사의 주(株)를 적어도 몇 백 주 가량은 사야만 떡 버티고 앉을 만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큰 계획이 깨어지고 말 것이라 그 역시 표면으로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었다.<sup>17)</sup>

- (2) “그래 녀(용환) 이놈 이 아버가 숨두 넘어가기 전에 그런 짓을 네맘대루 헌단 말이나 왕가에서두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는 걸 네가 그 땅을 ×놈에 게다 잡혀먹어? 이놈 신문사란 다 뭐 말리 뉘진 거냐. ××가 없는 죽은 목숨이 사업은 뭐구 행세란 다 뭐냐.<sup>18)</sup>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숙을 며느리로 맞이한 윤자작 역시 아들들의 문란과 사치로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는 없었다. 근대를 ‘소비’하는 것으로밖에 배우지 못한 아들들 때문에 갈수록 집안의 평판은 나빠졌고 재산은 축이 났다. 큰아들 용환은 동생의 조혼을 보고 “인간을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야만의 제도”라고 생각할 만큼의 의식은 있지만<sup>19)</sup>, 신문사 사업을 한다고 전답을 팔아서 기생첩을 들이고 자동차를 타고 요리집을 전전한다. 그리고 둘째아들 봉환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 모텔인 사요코를 데리고 조선으로 들어온 후 아내 인숙을 박대하고, 사요코가 떠난 후에는 같은 학교의 음악선생을 건드렸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소송에 걸릴 위기에 처한다.

17) 심훈(2016b), 「직녀성」, 『조선중앙일보』, 1934.4.18.; 앞의 책, 86~87쪽.

18) 심훈(2016b), 「직녀성」, 『조선중앙일보』, 1934.6.29.; 위의 책, 271~272쪽.

19) 홍양희, 「‘에비 없는’ 자식, 그 낙인의 정치학」, 박선주 외 편, 『고아, 죽보 없는 자 : 근대, 국민국가, 개인』, 책과함께, 2014, 220쪽.

1915년 관통첩의 ‘조혼 금지’에 따라 식민지 조선에서 “남 17세 미만 여 15세 미만인 자의 혼인신고”는 수리될 수 없었다. 『직녀성』에서 인숙이가 봉환과 결혼을 할 때의 나이는 14세이고 이들의 혼인 시기를 “인도교를 새로 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때라는 구절을 통해서 추정해 본다면 1917년 이후이다. 그러므로 인숙과 봉환의 조혼은 조혼이 법으로 금지된 이후에 진행된 것이므로, 조혼에 대한 용환의 냉소적인 태도는 조혼을 구습으로 치부하던 사회적 분위기를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들들의 탕진으로 인해 집달리들의 차압이 시작되자 윤자작은 자신이 보증을 썼지만 지금은 절교하고 지내는 ‘박남작’을 찾아간다. 하지만 그 역시 아들인 귀양이 가문의 땅을 몰래 팔아서 사요코와 함께 일본으로 도망간 상태였다. 그러므로 “노형의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한테 묶어서 단매에 때려죽여야” 한다는 박남작의 절규는 더 이상 자생의 여력이 없는 몰락한 아버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리고 이런 절규 뒤에 남는 것은 가문의 붕괴와 대가족의 해체였다.<sup>20)</sup>

이 시기에도 청년들을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은 ‘야심’, ‘정열’, ‘용단성’ 등이었다. 그리고 이런 가치 뒤에는 ‘신문배달’을 하든 ‘인력거’를 끄든 자신의 삶은 스스로 꾸려나가겠다는 굳센 마음과 실천력이 뒤따라야 한다. 1930년대에 창작된 남성 주인공의 성장소설이나 가족사소설에서 아들 세대들이 아버지의 세계와 결별하고 근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의지와 실행이 공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녀성』에 등장하는 아들들은 하나 같이 허영에 들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윤자작의 아들 봉환과 박남작의 아들 귀양 등 장안의 모던보이들이 모이는 종로의 ‘살롱 파리’는 이런 아들들의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운동선수, 남녀배우, 예술가, 신문기자 등은 이곳에 모여서 “십전짜리 사교관”을 벌인다. 이곳에서 배우들은 레코드를 틀어놓고 ‘폭스트롯’을 추고, 귀양은 동경의 첨단 생활을 부러워하며, 봉환은 일본인 애인 사요코를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파산 직전에 놓인 귀족 아들들이 세련된 척하며 일삼은 소비 때문에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파국의 길을 걷는다.

그래서 사생아이자 사회주의자인 박복순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채 구습에 젖어 있는 윤자작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 닳쳐 올 운명에 부딪친 것”, 즉 ‘역사적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아들을 기점으로

20) 남상권(2007), 앞의 논문, 336쪽.

시작된 가문의 몰락이 아버지의 육체적/상징적 죽음으로 마무리될 때, 이제 가문 안에서 긍정성을 지닌 유일한 존재는 딸들이 된다. 그러므로 『직녀성』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몰락하는 구조는 고립무원 상태에 놓인 인숙의 성장을 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서도 기능한다.

### 3. 은유에 갇힌 가문 속 여성들

『직녀성』을 여성 성장소설로 읽을 경우 서사를 이끌어가는 인물은 이한림의 막내딸인 이인숙이다. 아명만을 쓰던 인숙은 여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이인숙’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부모의 딸, 한 집안의 며느리, 남편의 아내라는 가문 속의 위치로 은유화<sup>21)</sup>되었던 주인공은 입학의 계기로 고유명사로 불리기 시작한다. 기혼여성인 인숙은 학교 입학의 매개로 가문 밖으로 나가 근대 제도 속으로 편입되어 새로운 생활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인숙’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호명되었을까? 우선 그녀의 출가 전 상황을 살펴보자. 『직녀성』의 서사 속에서 ‘과천’이라는 공간은 인숙이 시집오기 전까지 살았던 공간이자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공간’이다. 이곳은 “사오년이나 두고 온 세계가 들끓던 구주대전(歐洲大戰)의 피비린내 나는 비바람”도 피해 가는 ‘무풍지대(無風地帶)’였다.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한가롭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고착화된 삶의 방식이 무한히 반복

21) 『직녀성』의 각 장 제목은 그 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인물에 대한 은유화가 포함된 장 제목은 총 5개이다. 그 중 인숙에 대한 은유화가 드러난 장 제목은 <인형의 결혼>, <‘노리개’와 같이>, <백의(白衣)의 성모(聖母)>이다. 나머지 2개는 인숙의 갓난아기를 은유화한 것으로 <장중의 보옥>과 <잃어버린 진주>이다. 인숙과 인숙의 아이만을 은유하는 방식은 세철을 표현해야 할 때 장 제목을 <망명가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방식과는 대조를 이룬다.

되어 활기라고는 찾을 수 없는 공간이 될 위험이 있었다. 이곳에서 인숙의 부모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인숙을 “우리 방울이, 우리 막내딸 방울이”라고 불렀었다. 자칫 어둡고 무거워질 수 있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가족들 사이를 오가며 재잘대는 인숙은 집안의 재롱둥이였다.

이 무릎에서 저 무릎으로 굴러다니듯 하며 재롱을 부리는 것이 방울 같고, 무어라고 재잘거리며 안방 건너방으로 달랑거리며 드나드는 것이 방울 같고, 충기가 푹푹 떠는 새까만 두 눈이 놀라면 휘둥그레지는 것이 방울 같고, 새 된 듯하고도 가랑가랑한 목소리가 은방울을 흔드는 것 같고, 붙임성 있어 누구에게나 착착 붙이는 것이 께어 차고 싶도록 귀엽다고 해서 방울이란 별명을 지어 부른 것이었다.<sup>22)</sup>

그러나 ‘방울’이라는 별명에는 인숙을 향한 가족들의 사랑이 담겨 있긴 하지만 ‘방울’은 구르는 몸짓과 딸랑거리는 소리로만 표상되는 사물의 이름이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것처럼 방울이의 특징은 ‘재롱을 부리는 것’, ‘재잘거리는 것’, ‘달랑거리며 드나드는 것’,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 ‘목소리가 은방울 같은 것’, ‘착착 붙이는 것’ 등 사물화된 상태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방울이 시절의 인숙은 “피꼬리 같은 목소리로 당음(唐音)까지 줄 줄” 외울 만큼 총명하였지만, 이 시기의 인숙을 인격을 지닌 인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물화된 상태에서 이름을 얻지 못한 방울이는 혼처가 정해진 후 “바느질을 배우고 음식 만드는 법과 큰일 치르는 절차를 견습하고 한편으로는 규감(閨鑑)이니 내칙(內則)이니 열녀전(列女傳)이니 하는 책을” 읽으며 시집갈 준비를 한다. ‘시집갈 준비’라는 명목 아래 방울이가 할 수 있는

22) 심훈(2016b), 「작녀성」, 『조선중앙일보』, 1934.3.31.; 앞의 책, 37쪽.

일은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기능의 추가 역시 방울이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했다.

방울이의 이미지는 인숙의 결혼이 ‘인형의 결혼’으로 표현될 때 변주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 과정 역시 방울이의 존재론적 위상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새빨강게 연지 끈지를 찌고 품과 화장이 넓은 활옷을 입고 눈을 곱게 감고 앉은” 인숙은 그 외형의 아름다움 때문에 인형으로 은유화된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혼을 하는 인숙의 모습이 부모의 꼭두각시와 같다는 의미에서도 인숙은 인형이라는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구여성이 그렇듯이 자아각성을 경험하지 못한 인숙의 결혼 생활은 시증조모의 ‘노리개’라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이한림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며 열네 살의 인숙을 부잣집에 시집보냈지만 “인숙이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온 덕택에 생후 처음으로 배고픈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충충시하의 시집살이의 고단함은 시증조모에게 『옥루몽』이니 『사씨남정기』니 하는 이야기책을 읽어줄 때 배가 된다. 시증조모는 “벼르고 별려서 얻어 찬 귀여운 노리개”인 인숙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했다.

강아지나 고양이로 고기반찬을 먹여가며 어루만지는 유한부인(有閑婦人)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늙고 병든 시증조모는 인숙이를 언제까지나 각시처럼 눈앞에 앉혀놓거나 동자처럼 심부름을 시켜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었다.<sup>23)</sup>

인용문에서처럼 시증조모가 인숙을 ‘노리개’로 여기며 놓아주지 않는 것은 인숙의 삶이 아직도 아버지의 세계에 장악당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여성을 사물로 은유화하는 것은 여성을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는 물건으로 본다는 것이며, 이것은 사물인 여성에게는 주인이 있

23) 심훈(2016b), 「작녀성」, 『조선중앙일보』, 1934.4.23.; 앞의 책, 102쪽.

음도 함축한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있는 사물화된 여성에게 주체적인 자리는 주어지지 않는다.<sup>24)</sup>

이와 같은 은유가 문학의 다양한 지점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이것이 표현의 문제인 동시에 사고방식과도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인간은 은유적으로 사고하므로 그 사고가 표현되는 방식도 은유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유의 언어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의 입장과 관점이 담긴다. 또한 은유화가 진행될 때는 대상에 대한 ‘부각’과 ‘은폐’가 작동하고<sup>25)</sup>, 은유가 서로 다른 것들을 유사성이라는 관점으로 묶으면서 모든 변화하는 것들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sup>26)</sup>

게다가 타자를 생산하는 은유화는 타자가 악 혹은 결핍으로만 표상될 것이라는 편견을 낳는다. 일반적으로 타자는 우리가 아닌 남, 그들, 외부인, 도래자로 그려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그러진 괴물, 기괴한 자로 형상화된다.<sup>27)</sup>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직녀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랑스러운 ‘방울’이나 어여쁜 ‘인형’, 귀여운 ‘노리개’처럼 긍정적인 대상으로 은유화 되는 것 역시 타자화의 방식이라는 사실이다.<sup>28)</sup>

소설 속에서 인숙이 은유화를 거쳐서 타자화되는 방식은 남편 봉환이 인숙에게 붙여준 ‘직녀(성)’라는 애칭에서도 드러난다. 봉환은 동경으로 떠나면서 일 년에 한 번 방학 때만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과 아내

24) 전혜영, 「여성 관련 은유 표현에 대한 연구-속담·속언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5, 이화여자대학교한국어문학연구소, 1997, 489~490쪽.

25) 김주식, 「은유의 이데올로기 분석」, 『언어과학연구』 56, 언어과학회, 2011, 30쪽.

26) 김애령, 『여성, 타자의 은유』, 그린비, 2012, 72~73쪽.

27) 김애령(2012), 위의 책, 72쪽.

28) 황지영, 「근대 여학교 기숙사와 젠더규율의 이중성-「B사감과 러브레터」, 『구원의 여상』, 『은하수』에 나타난 은유화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2,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8.8, 79~80쪽.

에게 견우와 직녀의 이미지를 덧씌웠다. 은하수를 사이에 둔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가 생기는 칠월칠석 때만 만나는 모습이 자신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봉환의 사랑이 시들해지면서 이 둘은 일 년에 한 번도 만나기 어려워진다. 인숙은 시집을 가기 전부터 어머니께 바느질을 배웠고 남편과의 서먹했던 관계를 풀어준 계기 역시 바느질과 관계된 사건이었다. 또한 봉환과 떨어진 후 월부로 산 재봉틀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인숙은 옷감을 다루는 ‘직녀’의 이미지를 유지한다.

그럼에도 ‘직녀’가 인숙의 주체성과 자발성이 녹아든 명칭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인숙이 ‘견우’의 짝으로서의 ‘직녀’일 수 있는 순간은 봉환이 인숙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동안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는 봉환과 인숙이 이혼계를 부청에 접수한 후에 헤어지는 장면을 “철없는 봉환이가 인숙을 ‘직녀성’이라 부른 것도 짧은 여름밤의 한낱 희롱에 지나지 못하였으리라.”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한다.

요컨대 방울이, 인형, 노리개, 직녀가 될 때까지 작품 속에서 인숙은 끊임없이 은유화되어 그의 삶을 둘러싼 실제적 진실은 희석된다. 자신을 ‘방울’이라 불렀던 아버지, ‘노리개’ 삼아 놓아주지 않았던 시증조모, ‘직녀’라는 별명을 지어준 남편. 인숙이 가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들과 결별할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딸, 집안의 며느리, 남편의 아내가 아닌 본연의 삶을 사는 ‘이인숙’이 될 것이다.

#### 4. 아버지 세계의 포월(抱越)과 가문-밖-딸들의 선택

이 소설 속에서 주요인물인 인숙과 인숙의 시누이인 봉희는, 어릴 때는 아버지들에게 귀엽기만 한 딸이었다. 하지만 이 딸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

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세계)와 결별해야만 한다. 아들들은 몰래 재산을 빼돌릴망정 아버지에게 직접적인 반기를 들지 않았지만, 딸들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가출을 하는 등 아버지(의 세계)와 전면적인 대결도 불사하면서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 간다.

신문에 연재되었던 『직녀성』은 인숙이 아들 ‘일남(一男)’을 잃은 후에 상실감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여 ‘한강 인도교’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심훈은 여러 장편소설들의 서두에서 영화처럼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하였다. 이 소설의 서두는 밤중에 젊은 여자 혼자 “한강교로 가는 막차”를 타는 것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차장의 시선과 독자의 시선이 겹쳐지면서, 독자들은 소설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었고 몰입도 역시 증가하였다. 권철호의 지적처럼 이러한 장면 배치는 극적 긴장감이 가장 높은 장면을 서사의 도입부에 배치하여 ‘끌어들이는 서사(engaging narrative)’로써의 기능을 담당한다.<sup>29)</sup>

이 작품에서 ‘한강 인도교’가 중요한 이유는 강렬한 도입부의 공간적 배경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숙이 결혼을 통해 보다 강력한 아버지의 세계에 복속되는 과정과 그 세계에서 탈출하는 계기는 모두 ‘한강 인도교’를 중심으로 그려진다. 열네 살에 울면서 인도교를 건너 문안으로 시집을 갔던 인숙은 시집에서 “문서 없는 노예의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스물여섯 살에 아들을 잃고 여자의 몸이란 “평생의 고락이 남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고 이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다. 인숙이 처음으로 인도교를 건너는 장면이 입사의레이자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마지막으로 다리를 건너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 아버지 세계의 불합리와 폭력에 순응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된다.

29) 권철호(2015), 앞의 논문, 368~373쪽.

이들의 죽음, 자살 시도, 이혼 등 고난이 몰아친 이후 심신이 망가진 인숙은 주변 사람들의 친절한 위로와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정신적으로 죽음의 세계에서 거듭 날 용기”가 생겼고, 점차 “새로운 희망의 서광”을 발견한다. 그리고는 가문 속에 갇혀 가족들을 돌보기보다는 “더 큰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거룩하고 신성한 일임을 자각한다. 그래서 남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오냐, 죽으려던 용기를 가지고 살아보자! 정말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살해 버린 셈만 치고 나 한 몸을 바쳐보자! 이번에는 참 정말 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적으나마, 쓸모가 없으나마 이 몸 하나를 희생으로 바치자!’<sup>30)</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숙이 주체가 되어 가는 과정은 아버지(의 세계)와 분리되는 과정이지만, 분리 후에 자립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한 것 역시 아버지(의 세계)였다는 점이다. 이한림은 ‘계집애가 글을 배우면 팔자가 사납다’는 말을 믿었으나 ‘방울’이 시절의 인숙에게는 글을 가르쳤다. “계집애도 기성명은 혈 줄 알아야 후일에 남편한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 인숙은 시집가기 전까지 열심히 한 문책을 읽는다.

이렇게 한문을 익히고 시집을 간 인숙은 남편 봉환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 자신을 학교에 보내달라고 남편을 설득한다. 그 후 시누이 봉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남편에게 시어른들께 보내는 편지의 구절을 알려주는 등 학교에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아버지의 생각을 이어받은 인숙은 지금은 옛날과 시대가 달라서 “가정부인도 신학

30) 심훈, 『직녀성』, 『조선중앙일보』, 1935.2.12.; 김종욱·박정희 편, 『심훈 전집4 직녀성(하)』, 글누림, 2016c, 389쪽.

문을 모르고 견문이 없으면 앞으로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숙의 정신적 스승인 복순은 인숙과 달리 인숙이 학업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도깨비굴” 같은 시집에서 벗어날 때를 대비하고 “자립 해 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결생이 난 사립 여학교에 인숙이 입학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시가의 가세가 기울면서 인숙이 학업을 중단하자 분개한다. 결국 시대에서 나온 인숙이가 다시 학교를 다니겠다고 할 때도 복순은 현 재봉틀을 월부로 얻어다 주면서 인숙이 졸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인숙이 결혼 후 학교에 가서 배운 근대 학문과 생계를 이을 때 사용한 재봉틀, 그리고 유치원 보모라는 직업은 아버지의 세계에서 배웠던 진서와 바느질, 그리고 『규감(閨鑑)』과 『내칙(內則)』이 근대적 형태로 모습을 바꾼 것이었다. “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교육하는 아버지”<sup>31)</sup>를 둔 구여성 방울은 신여성 이인숙이 되었지만, 인숙은 마지막까지도 전통적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세계를 변용해서 끌어안고, 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바느질을 하여 번 돈으로 학교를 마치고, 사회적 차원에서 부덕(婦德)을 실천하기 위해 유치원 보모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편 귀족 집안의 고명딸인 봉희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 교육을 받았으며 학업 성적과 외모가 모두 뛰어난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런 봉희는 혼인을 앞두고 아버지와 전면적으로 대립한다. 봉희의 아버지인 윤자작은 사위감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동 한 참판의 집”으로 봉희를 시집보내려 한다. 그러나 자유연애를 통해서 고아이면서

31)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81~186쪽.

사회주의자인 세철을 사랑하게 된 봉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봉희가 아버지에게 “반역의 깃발”을 든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사는 시대는 아버지가 사는 시대와 다르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시대에는 부모가 정해진 배우자를 만나 순종적으로 사는 삶이 중요했다면, 봉희의 시대에는 결혼 상대를 선택할 자유와 부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가기 위한 정신상의 정조 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확고한 봉희는 졸업 전 마지막 시험도 보지 않고 가출을 한 후에 어렵사리 세철과 결혼한다. 그 후 단칸방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만족하며 살아간다. 봉희가 가치를 두는 것은 구속이 동반된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가난을 선택할 자유,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가족로망스’에서 소외되었던 딸들인 인숙과 봉희는 ‘가족로망스’의 아들들과 달리, 아버지의 세계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인숙은 ‘자살 시도’ 후 이혼을 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짐으로써, 봉희는 ‘가출’ 후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성취함으로써 온전한 주체로 거듭난다. 가문-밖-딸들의 자살 시도와 가출은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이자 근대 세계로의 입성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이 서막을 기점으로 아버지 세계의 유산을 품은[抱] 가문-밖-딸들은 아버지의 세계를 넘어서기[越] 위해, 가문 안에서 강요받던 수동성을 벗어 던지고 능동적으로 자신과 남을 함께 위하는 삶을 찾기 위해 분투한다.

## 5. 사회주의(자)와의 접속과 고아들의 공동체

개화기를 거쳐 식민지기가 진행되는 동안 양반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는 인물이 가문 안에 하나라도 있어야 했다. 그러나 소설 속에 그려지는 이한림의 가문이나 윤자작의 가문에는 시대를 꿰뚫어보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들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근대라는 유행에 휩쓸린 아들들은 집안의 재산을 탈취하여 근대도시가 있는 중국이나 일본으로 도망을 간다. 하지만 이 아들들의 해외로의 이동은 근대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었을 뿐 근대적 삶의 태도를 배양하고 근대적 지식을 활용해서 개인과 가문, 사회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가문 밖으로 나간 딸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 사회주의자들과 만나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만약 ‘고아’가 특정한 역사적 맥락이나 정치적 전략의 결과물<sup>32)</sup>이라면, 소설 속에서 고아로 그려진 계층은 그 계층에 대한 당대의 인식과 작가가 그에게 부여한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직녀성』에는 처음부터 고아인 상태로 등장하는 복순과 세철, 그리고 아버지 세계와의 분리를 통해서 고아가 되는 인숙과 봉희라는 두 무리의 고아가 등장한다. 전자는 사회주의의 선발대로서 계급투쟁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바꾸려 하고, 후자는 적극적인 이념을 지니진 않았지만 선발대의 지도를 받아 사회주의의 긍정성을 인정한다. 이들은 가족로망스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데 실패한 식민지 조선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회주의’를 구심점 삼아 근대적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

인숙을 새로운 세계로 이끈 복순은 계집종의 사생아로 윤자작 부인의 후원 아래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나이가 차서 시골 토반의 후취로 보내졌으나 박색이라는 이유로 소박을 맞고 다시 윤자작네로 들어온다. 소박 후에도 복순은 붉은 표지의 사회주의 서적을 비롯해서 신문, 잡지,

32) 박선주 외 편(2014), 앞의 책, 5쪽.

책 등을 계속 읽어간다. 민적도 없는 고이<sup>33)</sup>에다가 세상에 미련도 없어 보이는 복순은 처음에는 “계급의식의 색안경”을 끼고 ‘양반의 딸’이자 ‘귀족집 며느리’인 인숙에게 적대감을 드러낸다.

“난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라났다우. 더군다나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구... 민적에두 내 이름이 빠졌으니깐. 일테면 난 조선 사람이 아니구 땅에서 솟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떨거지라고는 이 세상에 하나두 없으니깐 여간 홀가분하지가 않거든요.”<sup>34)</sup>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리하고 친절한 인숙에게 마음을 열어 세상 형편, 조선 여성들의 불합리한 상황, 자신이 몸을 바치는 (사회)주의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학업을 마치기 위해 화장품을 팔러 다니고 남의 빨래를 해주는 등 고생을 한 복순과 양반가에서 곱게 자란 인숙이 초반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상이 서로 공명되거나 동지”라는 의식 때문이 아니라 “동성끼리의 정의”가 자별해서였다.

한편 봉희에게 영향을 주는 세철은 ‘살롱 파리’에 모여 있던 예술계의 모던보이들과 대척되는 지점에 놓이며, 강단 있는 남성이자 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념형 인물이다. 또한 경성전기학교에 다니는 세철은 근대의 문화예술을 비판하고 과학기술의 가치를 긍정한다.<sup>35)</sup> 세철의 아버지는 망명해서 시베리아로 떠났고, 어머니는 복순이 다니던 학교의

33) 홍양희(2014), 앞의 글, 218쪽.

일본의 영향을 받은 식민지 조선의 법률은 어머니가 있더라도 아버지를 확보하지 못한 아이는 혈통을 모르는, 즉 근본과 뿌리가 ‘없어’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었다. 자식에게서 ‘어머니’의 ‘괴’를 뽑아버리고, ‘아버지’의 ‘혈통’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방식은 민적에도 올릴 수 없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타자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34) 심훈(2016b), 「직녀성」, 『조선중앙일보』, 1934.5.30.; 앞의 책, 204쪽.

35) 권희선(2002), 앞의 논문, 194~195쪽.

선생이었는데 만세통에 감옥에 갔다가 사망하였다. 그래서 세철과 복순은 성도 같고 외로운 처지도 같아서 의남매를 맺는다. 이런 세철에게 봉희가 관심을 보이자 세철은 봉희에게 “귀족—양반—놀고먹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다.

고학을 하면서 매약 행사, 세탁 주문, 겐마이 빵장수 등을 하며 “폴처럼 자라난” 세철은 세상이 모순 덩어리이며 최악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암흑한 사회의 이면”을 봉희에게 알려주기 위해 함께 “신마 썸”라는 ‘유곽’에 간다. 이곳에서 남성과 같은 인간임에도 생존을 위해서 성을 파는 여성들의 고통을 역설하는 세철을 보고, 봉희는 그의 정의감에 감명 받아 엄숙한 기분을 느낀다.

‘복순-인숙’과 ‘세철-봉희’는 처음부터 ‘영향수수관계’였지만, 이 관계가 보다 공고해지는 것은 복순과 세철의 사회주의적 활동이 부각된 이후였다. 여자 사상단체의 대표기관인 ××회의 간부이자 서무부 책임자였던 복순은 입이 무거워서 회에서 진행하는 비밀스러운 일이나 중요한 문서를 맡아서 관리하였다. 그런 복순이 어느 날 동지들과 무슨 맹세를 하느냐고 머리를 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잡혀간다. 그리고 “비밀결사인 사회과학연구회”에 몸담고 있었던 세철마저 경찰에 검거되면서 ‘복순-인숙’과 ‘세철-봉희’의 관계는 멈추는 듯하였다.

하지만 복순과 세철이 출소한 후에 이들의 연대는 인정을 넘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차원까지 발전한다. 인숙은 출소한 복순의 경험담을 들으며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과 주의를 위해 투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세철은 출소 후에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봉희는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철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와 결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실행에 옮긴다. 이 둘의 ‘진정한 사랑’은 심훈이 낭만적 열정을 수반한 연애와 거리를 두고, 동지애적 사랑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sup>36)</sup>

이처럼 고아와 다름없는 가문-밖-딸들이 아버지 없는 사회주의자들과 공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나 우애나 또는 동정”은 함께 고생한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여기에 여성 운동에 가담했고 조선의 지식분자로서의 번뇌를 지닌 허의사까지 결합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더욱 다원화되고 강력해진다. 시누와 올케 사이였던 인숙과 봉희, 의남매 지간인 복순과 세철, 그리고 새롭게 의자매를 맺은 인숙과 허의사의 관계에서 가문을 유지시키는 ‘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들을 묶어주는 것은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뜻[義]’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모여서 “해삼위 방송국에서 오는 이라사 음악”을 듣는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사회주의의 나라인 러시아에서 흘러나오는 ‘행진곡’을 함께 들으며 이들이 구상하는 공동체는 ‘공유’와 ‘분업’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 각기 적으나마 벌어들이는 대로 공평히 추렴을 내어서 생활을 하여 나갈 것과, 될 수 있는 데까지 생활비를 절약해서 여유를 만들어 ××학원과 유치원에 바칠 것이며(인숙의 월급은 삼십 원으로 정하였다 하나 이십 원만 받으리라 하였다)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듯이 이 공동 가정의 대표자로는 복순을 내세워 외교를 맡게 하고, 살림을 주장해 하는 것과 어린애를 양육하는 책임은 인숙이가 지고, 회계위원 노릇은 봉희가 하는데, 세철은 몸을 멋으로 쪼개고 싶도록 비뻔터이라, 무임소대신(無任所大臣)격으로 대두리 일을 통찰하게 하기로 헌법을 제정하였다.<sup>37)</sup>

이제 이들에게 수직관계를 기반으로 한 아버지의 세계는 큰 의미를 지

36) 박소은(2001), 앞의 논문, 369쪽.

37) 심훈(2016c), 「적녀성」, 『조선중앙일보』, 1935.2.25.; 앞의 책, 421쪽.

니지 않는다. 이들은 그 누구의 연고지도 아닌 원산에 모여, 가정교육이 미비한 조선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수많은 아들딸”들을 키울 준비를 한다. 이것은 사랑의 실현이자 확대된 모성의 새로운 발견<sup>38)</sup>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꿈꾸는 수평적 공동체는 아버지와 아들 중심의 가족로망스가 사라진 곳이고, 조선의 별이자 꽃인 아이들이 커나갈 곳이며,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고아들이 모여 다초점을 이루는 곳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각기 다른 계층을 바라보는 “중층적 교차시각을 획득”<sup>39)</sup>한 작가의 노력은 치하할 만하다. 하지만 작품의 결말 부분에는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인숙의 수난을 통해서 여성 인물의 성장을 그려내는 『직녀성』의 마지막 장의 제목은 “백의(白衣)의 성모(聖母)”이다. 유치원 보모가 된 인숙은 하얀 옷을 입고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숙을 “백의(白衣)의 성모(聖母)”라고 부른다.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을 ‘성모’의 이미지로 치환하는 것은 근대 소설에서 상투적인 설정이다. 그럼에도 『직녀성』의 이 설정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인숙은 가장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순간에도 은유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대서사에 대한 작가의 불충분한 탐색, 모더니즘의 간과에서 온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sup>40)</sup> “유행에 휩쓸렸을 뿐 독창적인 사유의 결과”를 낳지 못한 심훈 소설의 한계로 이야기되기도 한다.<sup>41)</sup> 심훈은 이혼 후에도 전부인인 이해영을 모델로 하여 소설 『직녀성』

38) 이상경(2001), 앞의 논문, 198쪽.

39) 최원식(2002), 앞의 논문, 148쪽.

40) 권희선(2002), 앞의 논문, 205쪽.

41) 유병석(1984), 앞의 논문, 297쪽.

을 창작하였고, 여성 주인공의 주체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가문과 주인공의 끈을 끊어버리고 나서 다시 인숙의 긍정성을 성모라는 은유를 사용해 설명한다. 그는 아버지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설사 이 장면이 전통과 근대의 교차라는 시대적 특수성과 아버지의 세계를 포월하려고 했던 작가의 세계관이 맞물려서 만들어진 문체적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김종욱·박정희 편, 『심훈 전집1: 심훈 시가집 외』, 글누림, 2016a.  
 김종욱·박정희 편, 『심훈 전집4: 직녀성(상)』, 글누림, 2016b.  
 김종욱·박정희 편, 『심훈 전집5: 직녀성(하)』, 글누림, 2016c.

2. 논문

강상순, 「조선후기 장편소설과 가족 로망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33~64쪽.  
 강유진, 「근대 주체로서의 성장과 가족로망스」, 『語文論集』 39, 민족어문학회, 2008, 145~160쪽.  
 권철호, 「심훈의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사랑의 공동체” - 무로후세 코신[室伏高信]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5,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179~209쪽.  
 ———, 「심훈(沈熏)의 장편소설(長篇小說) 『직녀성(織女星)』 재고(再考)」, 『語文研究』 43-2, 어문연구학회, 2015, 357~385쪽.  
 권희선, 「중세 서사체의 계승 혹은 애도: 심훈의 『직녀성』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20, 민족문학사연구소, 2002, 178~207쪽.  
 김명인, 「한국 근현대소설과 가족로망스: 하나의 시론(試論)적 소묘」, 『민족문학사연구』 32,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332~352쪽.  
 김주식, 「은유의 이데올로기 분석」, 『언어과학연구』 56, 언어과학회, 2011, 29~52쪽.  
 김현주, 「구할자본 소설에 나타난 “가정담론”의 대중미학적 원리」, 『泮矯語文研究』 27, 반교어문학회, 2009, 247~280쪽.  
 남상권, 「『직녀성』 연구: 『직녀성』의 가족사 소설의 성격」, 『우리말글』 39, 우리말글학회, 2007, 309~338쪽.  
 문광영, 「沈薰의 장편 『織女星』의 소설 기법」, 『교육논총』 20, 경인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 2002, 129~164쪽.  
 박소은, 「새로운 여성상과 사랑의 이념: 심훈의 『직녀성』」, 『한국문학연구』 2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1, 351~373쪽.  
 송지현, 「심훈 직녀성 고-그 드라마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1, 한

- 국어어문학회, 1993, 417~429쪽.
- 오현주, 「심훈의 리얼리즘 문학 연구 : <직녀성>과 <상록수>를 중심으로」, 『현대 문학의 연구』 4, 한국문학연구학회, 1993, 88~113쪽.
- 유병석, 「심훈의 생애연구」, 『국어교육』 14, 한국어교육학회, 1968, 10~25쪽.
- \_\_\_\_\_, 「沈熏의 작품세계」, 전광용 외,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1984, 286~298쪽.
- 이상경, 「근대소설과 구여성 : 심훈의 『직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9,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174~200쪽.
- 전혜영, 「여성 관련 은유 표현에 대한 연구-속담·속언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5, 이화여자대학교한국어문학연구소, 1997, 483~505쪽.
- 조남현, 「沈熏의 『織女星』에 보인 갈등상」,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90, 201~219쪽.
- 조선영, 「심훈의 삶과 문학 창작과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137쪽.
- 최원식, 「심훈 『직녀성』의 계보」, 『大東文化研究』 40,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2, 137~152쪽.
- 황지영, 「근대 여학교 기숙사와 젠더규율의 이중성-「B사감과 러브레터」, 『구원의 여상』, 『은하수』에 나타난 은유화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2,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8.8, 73~103쪽.

### 3. 단행본

-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1~166쪽.
- 김애령, 『여성, 타자의 은유』, 그린비, 2012, 1~176쪽.
- \_\_\_\_\_, 『은유의 도서관』, 그린비, 2014, 1~276쪽.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503쪽.
-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 반오이디푸스 문화론』, 문예, 2007, 1~509쪽.
- 린 헌트,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조한욱 역, 새물결, 2000, 1~310쪽.
- 박선주 외 편, 『고아, 족보 없는 자 : 근대, 국민국가, 개인』, 책과함께, 2014, 1~272쪽.
- 신경림 편,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지문사, 1982, 1~329쪽.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1~384쪽.

지그문트 프로이트, 『종교의 기원』, 이윤기 역, 열린책들, 1997, 1~472쪽.

\_\_\_\_\_,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역, 열린책들, 2003, 1~407쪽.

ABSTRACT

Failed Family Romance and Community of Orphans

—The focus of Simhun’s “Jiknyeoseong”(1934~1935)—

Hwang, Ji-young

According to Freud’s family romance, the generation of the sons on the national level denied the generation of their father and formed a new society in solidarity with their brothers. However, due to the peculiarity of the colonies, the situation of Joseon changed from that of the French Revolution. Simhun depicts his father’s generation, which is positive in “Jiknyeoseong” not to be denied. And the reason for the fall of son, the foolish modern man. On the other hand, the daughters who have been metaphorized in the world of the father are separated from the family in the situation where the father and the son are in the same collapse. After that, daughters meet orphans and socialists. They actively cooperate to build a new society based on sharing and division of labor together.

**Key Words** Simhun, Jiknyeoseong, Family Romance, Metaphor, inclusion-transcendence, Socialism, Community

논문투고일 : 2019.04.06  
심사완료일 : 2019.05.13  
게재확정일 : 2019.05.20